〈주요개념〉 농지개혁, 농촌공동체, 생산조직(두레), 의례조직(상례), 신분관계(반상관계), 지구/소작 관계

농지개혁과 마을 공동체의 변형:

경기동남부의 두 지역을 중심으로

오창현*

1. 서 론

1) 문제제기

'공동체'는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에서 주요한 연구대상 중하나였다. 한국의 농촌(마을)공동체(이하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지금까지 한국의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개괄하고 연구사적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오츠카 히사오(大塚久雄 1982[1955])의 '전근대사회의 공동체 기저론'이라는 역사이론 속에서 공동체를 '원시 공동체의 유산'이 해체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으로 다루는 입장이다(최은영 1984; 조경만 1987; 신용하 1987); 윤수종 1990: 101-253).2)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¹⁾ 신용하(1987: 507-8)는 일제시기에 마을 공동체와 두레 공동체가 쇠퇴한 원인을 9가지 들고 있는데, 그중 첫 째가 상품경제의 침투에 따라 개인적 이익 추구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촌락 공유지의 소멸이었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는 "한국농촌의 사회생활에서는 명확한 독립성을 갖고 농촌 사람의 거의 전부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지역이 존재"한다거나, "이 지역의 사회생활은 또한 하나의 독자의 관습과 전통을 가짐으로써 그 자체가 전체로써 하나의 통일성을 보존하고 있다(최재석 1981:55)"고 가정한 스즈키 에타로(鈴木榮太郎 1943, 1973)3)의 '자연촌 이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설명하는 입장이다(최재석 1987; 한 상복 1964, 1983). 이들의 연구는 당시의 사회이론을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공동체와구별되는 한국적 특질을 설명해 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주로 다른 농촌사회와 구별되는 한국농촌사회의 특질에 관심을 가진 브란트(Brandt 1972), 이토 아비토(伊藤亞人 1990, 2002), 혼다 히로시(本田洋 2003) 등 주로 해방 이후 미국과 일본 인류학자들에에 의해서 연구된 입장이다. 세 번째 입장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국농촌사회에는 사회ㆍ경제적 강제성을 갖는 '실질적인 형태의 공동체조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Informal relationship)(Brandt 1972)'와 '친한사이(伊藤亞人 1990, 2002)'라는 개인적 연망에 주목하였다. 혼다 히로시(2003)는 일본농촌

²⁾ 오츠카 히사오의 이론은 나카무라(中村哲 2000[1977]) 등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을 뿐더러, 이 같이 보편역사이론을 전제로 한 연구들은 한국의 농촌사회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어 왔고, 한국 농촌사회조직 중에서 어떠한 특성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근대화와 함께 어떻게 해소되어 갔는지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³⁾ 스즈키 에타로(鈴木榮太郎 1943, 1973)가 말하는 자연촌이란 ① 그 범위 내에서 각 종 집단과 사회관계의 누적을 현저히 볼 수 있으며,② 긴 역사를 갖고 하나의 정신과 행동원리로 규제 받는 사회적 통일체라는 두 가지 요건에서 정의된다. 그는 조선에서 자연촌을 일제 초기에 추진된 동리 통폐합 이전의 구동리(舊洞里),즉 긴 역사를 가지는 촌락공동체라고 말한다.

⁴⁾ 오카타 히로키(岡田浩樹 2001: 54-56)은 인류학사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친족관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양반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두고 거기에서 모델을 끌어내려고 하는 한국인연구자와, 비-양반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실태를 포괄할 수 있는 모델구축을 찾는 일본인 연구자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연구자들은 주로 아키바 다카시(秋類塗)의 이중구조론을 염두에 두고 비양반적인 사회의 친족모델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사회와 비교하여 '한국농촌사회의 지연성과 공동성'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그는 스즈키 에타로(1943, 1973)를 비판하면서 조선과 한국의 자연촌 혹은 자연부락의 사회적 통일의 증거로 지적할 수 있는 마을 내의제도 · 조직의 특징은 '고유의 관습과 전통으로 지적하는 마을의 특화된고유성'이 아니라, 오히려 "두레나 동계의 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보편성, 호환성"이라고 말한다(本田洋 2003: 258).5) 이들은 영미사회혹은 일본사회와 구별되는 독특한 한국 사회조직의 특징을 개인적 연망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일본사회와 달리 공동성에 지연성이 약하게 개재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농촌사회에 개인적 연망을 넘어선 공동체적 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비록 대부분의 사회조직이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 누적적으로 펼쳐지는 일본과는 달리 사회조직이 맺어지는 범위가 지리적 '역사적으로 유동적일지라도, 한국 농촌사회에는 몇 개의 자연취락집단이 묶여 어느 정도 명확히 인지되는 지리적 경계와 고유한 지역이름이 존재해 왔으며, 이는 유동적인 '개인적연망'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네 번째 입장은 한국사회의 사회구조와 친족구조를 동일한 층위에 놓고 분석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는 친족관계, 문중조직을 중심으로 주로 동족마을을 연구해 온 인류학자들의 연구가 포함된다. 이광규 (1971, 1975)는 사회구조 연구를 주로 친족제도, 친족관계에 한정시켜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이중구조론(秋葉隆 1987, 1993)'과 유사하게 친족제도와 친족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비-친족관계를 구분하여, 의

⁵⁾ 혼다 히로시(本田洋 2003)는 구동리(舊洞里)와 부락 및 행정리 사이에 대응관계를 볼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각각의 중심 취락의 위치와 명칭 차원에서의 일이며, 중소취락을 포함한 지리적 경계나 하나의 마을, 동네로 인지되는 사회적 범위는 꼭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공동조직은 주민의 전출입에 따라서 용이하게 재조직된다는 점에서 일본 촌락의 이에가부(家株) 제도와는 다르다. 즉성원 수의 제한이나 가입・이탈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 부재하고, 동계의 공유재산도쌀, 현금 혹은 전답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분할 매각이 가능하며, 그것을 제한할 장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례와 사회조직 등을 연구한 한국, 미국, 일본인류학자들의 성과물들도 있다. 이 같은 연구경향은, 비록 친족제도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사회구조를 배타적인 유교적 친족제도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비 번째 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그밖에 친족제도를 친족이나 마을구조에 한정하지 않고 친족을 넘어서는 신분제나 지연성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연구한 논문들도 있다. 시마 무츠히코(島陸奥彦 1978)는 한국인의 '고향'개념을 문중의 성립과 관련지어 설명했는데, 그는 문중의 결속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중이 '신분'유지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고향'의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이 오카타히로키(岡田浩樹 2000)는 보다 구체적으로 '신분'에 기반한 '고향'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구군(舊郡) 단위의 유림집단이라고 주장하며, 비상민화(非常民化)가의 원동력을 유림네트워크가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맥락(context)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시마 무츠히코(島陸奧彦 1978)가 지적하고 있듯이, 일제시기에 마을공동체, 지역사회구조는 친족만으로는 설명할수 없다.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35)에 따르면, 1935년 조선에는 7만 여개의 자연마을이 존재했는데, 그중에서 동족마을은 1만 5천 여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1만 5천 여개의 동족마을 중 유명한 동족마을로 1,685개가 선정되었는데, 전체 평균호수는 77.1호였고 그중에 동족호수는 47.8호로 동족원은 약 62%를, 비동족원은 38%를 차지했다. 비록 동족마을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비동족원을 마을구성원으로 포함하고

⁶⁾ 시마 무츠히코(島陸奥彦 1978)는 '문중형성'의 원인을 비록 양반출신일지라도 '고향'이 아닌 곳에서는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신분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고향'의 개념은 단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장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자신의 집안이 수세대에 걸쳐 살아온 마을이라도 자신이 사는 현재 그곳에서 자신의 친족이 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만이 살고 있다면, 그곳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향이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고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곳은 타향이고 객지일 뿐이며, 자신의 동족의 중심지가 비로소 진정한 고향이 된다는 것이다.

⁷⁾ 오카타(岡田浩樹 2000: 283)는 '양반'이라는 계층에 대한 지향성을 의미하는 '양반 화'와 구분하기 위해서 '비상민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친족관계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친족관계를 뛰어 넘는 지연집단인 마을제, 마을계, 마을노동조직, 상여운반조직 등을 설 명할 수 없다.

'농촌공동체'는 최근의 역사학적·민속학적 연구성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생산력8), 지배관계, 생산관계 등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이해준(1996: 2장)은 지역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지리적 경계의 변화는 16~17세기 사족 중심의 촌락 지배구조의 성립과, 이후 새로운 촌락조직 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김수미(2003)는 자연마을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인 마을제는 향촌지배세력과 관련되 어 지리적 범위를 달리 해왔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정승모(1991, 1998), 이기태(1997), 황경순(2001)는 마을제가 지역사회를 넘어서 군 현단위, 국가단위의 권력구조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변화되어 왔음 을 보여주었다. 생산력의 발전 또한 지리적인 의미에서 집촌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졸고 2005: 1-4). 특히 정승 모(2002, 2005)는 마을공동체가 유지되는 모습을 신분, 지연, 의례, 경 제적 관계와 관련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정승모(2002)는 20세기 중반 반상관계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반상관계의 유제가 변형되거나 잔존하 는 방식을 상례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정승모(2005)는 지연성 과 신분관계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18세기 후반 이후 지역공동체인 마 을계의 변화, 상하합계(上下合契)에서 상중하합계(上中下合契)로의 변 화를 통해서 살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한 공동체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최근의 역사적, 민속학적 연구 성과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관점 이나 입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1950년대 이전의 마을공동

⁸⁾ 생산력과 마을규모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승모(1991), 졸고(2005: 2장)를 참조하기 바란다.

⁹⁾ 물론 한국사회, 한국의 농촌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한국사회에 대한 이론적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체의 성격에 대한 역사학적이고 민속학적인 연구성과들이 1960년대 이후의 인류학적, 사회학적 연구성과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일제시대의 연구자들과 해방 이후의 연구자들 사이에 급격한 단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제시기 후반 이후로 민속학, 인류학 연구가 역사적인 방식으로 축적되지 못하였을 뿐더러, 1960년대 후반 이래의 연구 역시 공시적 관점을 중시하는 현지연구방식을 통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와 1960년대 사이에 일어났던 반상관계, 생산관계의 변화상을 인류학적 연구들이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같은 연구사적 단절은 해방 이후의 인류학적 연구가 1950년대 한국사회 특히 농촌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 중의 하나인, 농지개혁을 분석대상에서 놓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촌락연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해방 이후 부터 1950년대 전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농지개혁'10이 가져온 농촌공동체의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이 갖는 함의를 보다 분명히 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미국과 일본 인류학자들이 주로 현지연구를 통해서 지지한 세 번째 입장, 곧 한국사회에서 지연성 혹은 마을 내의 위계 구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 혹은 주로 한국 인류학자들이 지지한 네 번째 입장, 곧 한국에서 마을구조와 친족구조를 동일선상에서 연구가능하다는 전제가 함의하는 바를 본 논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1960년대 이후의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갖는 한계는 한국농촌의 사회구조가 농지개혁에 의해서 완전히 혹은 상당부분 파괴된 1960년대 이후 상황에 대한 현지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되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참고로 밝혀두는 바, 본 연구에 사용되는 여러 사례들은 농지개혁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사된 것들이 아니다. 각 마을의 민속지를 작성하는

¹⁰⁾ 여기서 '농지개혁'은 1948년 미군정의 토지개혁과 1950년의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과정에서, 해방 이후 마을 내의 사회조직의 역사적 변화와 그것의 원인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변화에서 농지개혁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다.

2) 해방 후 농지개혁에 대한 연구성과

농지개혁에 대한 연구는 자본주의의 성립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까지 매우 첨예한 문제를 둘러싸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정치학과 경제학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는데, 주로 농지개혁 실시시기와 성공여부, 한국전쟁 중 남한에서의 북한의 토지개혁, 이승만 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의 유무(김일영 1995, 2000), 산업자본의 성립여부(장상환 1993b, 2000; 박진도 1993; 이지수 1994; 김일영 2000), 일제시기 소작정책과의 관련 하에서의 논의(신기욱 2001; 방기중 2001) 등이 주된 논의대상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학계에서는 한국전쟁 이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櫻井浩 1976)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같은 견해는 1980년대 실증자료를 근거로 한 장상환(1984, 1985)과 김성호 외(1989)의 주장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장상환(1985: 20-21)은 면사무소 행정문서를 토대로 4월 18-19일에 분배예정지 통지서가 발행되어 가장 중요한 농지분배는 사실상 4월 안에 완료되었다고 말한다. 김성호(1989: 996-997) 역시 정부문서를 근거로, 농지개혁법 시행령이 공포된 1950년 3월 25일보다 하루 전인 3월 24일에 농지분배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견해는 이후 많은 연구들(류기천 1990; 김성호 2001)에 의해서 다시금 확인되었다.11) 농지개혁의 실패워인으로

¹¹⁾ 농지개혁의 실시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의 성격 규정에 있다. 바로 한국전쟁이 해방전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많이 지적되어 온 지주에 의한 소작지 방매의 경우(장상환 1984, 1985)에도 이미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 이후에 남한에서의 농지개혁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지주가 유리한 조건으로 방매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지어 농지개혁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방매한 사례마저 존재하였다(박석두 1987; 류기천 1990; 홍성찬 1992; 정진상 1994; 홍성흡 1986: 58). 즉 광복당시의 소작면적 1,447천 정보 중 귀속농지와 분배농지로 584,638정보(전체 소작지의 약 40%)를 분배시킨 두 번의 농지개혁(김성호 1989)과 이를 전후로 농지개혁과 비슷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방매로 인하여 1960년 소작지비율은 11.9%로 감소하였다(장상한 1993a: 17). 지주적 토지소유가 농지개혁을 계기로 거의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실증적 사례가 연구되고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기존연구들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 우선 기존의연구들은 소위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형(transformation)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간과했다. 농지개혁을 다루는 많은 연구자들은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사회적 변형이라는 문제를 현재적 관점에서 경제적 문제로 환원시켜서 바라보거나, 사회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던 전근대적 요소가 가진 힘을 간과하고 잔재(survival)로만 치부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전근대적 요소란, 근대적 요소인 비인격적관계, 국민국가와 대비되는 인격적관계12), 지역공동체성을 가진 요소를 의미한다. 두 번째, 농지개혁에 대한 기존의 성과들은 주로 농지개혁의 실패와 성공에만 집중하였을 뿐, 농지개혁이 가져온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는 농지개혁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 변형'이라는관점에서 접근되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참예한 정치적 논쟁을 중심으로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도 살펴볼 부분이지만, 농지개혁

¹²⁾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학적으로는 Weber(1968)의 관료제와 합리화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농촌사회조직 내에서 인격적 관계에서 비인격적 관계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졸고(2005)에서 이중계 조직의 변화를 참조하기 바란다.

은 지역마다 생산관계, 신분관계, 친족관계,13) 친족과 비친족 간의 관계, 생산력의 상이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세 번째는 농지개혁이 가져온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피는 몇몇 사회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성과는 많지 않다.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앞에서 제기한 첫 번째 한계, 즉 전근대적 관계가 갖는 미시적인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지역공동체, 전근대적 신분관계의 본질을 사고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두 번째 한계인 미시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도출될 수 있는지역적 다양성을 사고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의 연구가 주목하지 못했던, 공동체적 성격을 보여주는 두레와 상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농지개혁이 농촌사회조직과 농촌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으며,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및 사회문화사 연구에서 공백으로 남겨져 있던 농지개혁과 관련된 한국의 마을공동체의 변화상을 밝히고, 나아가 결론에서는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리'와 이후의 사회문화적 변화상이 가지는 문화사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지 개관

본고에서는 필자가 석사논문을 위해서 2004년 현지연구를 수행한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사례와 2007년에 현지연구를 실시한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해방 전후로 두 지역의 지리적 환경, 친족구조, 경제구조는 매우 상이하였다. 산음리는 19세기 후반 이후 용문산에서 발원하여 봉미산과

¹³⁾ 천족관계가 농지개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함한희(2004)가 서산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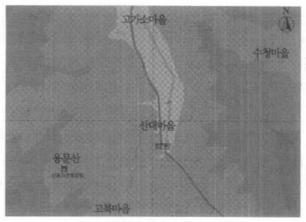


그림 1. 양평군 산음리 내의 마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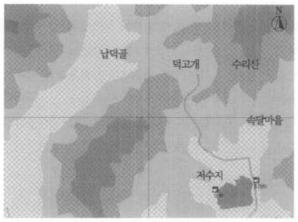


그림 2. 군포시 속달동의 마을들

소리산 사이를 따라 난 계곡 깊숙한 곳에 형성된 마을로서 마을 내의 친족조직이 뚜렷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성씨들이 모여 사는 각 성받이 마을이다. 각 마을은 계곡을 따라서 발달하였는데, 가장 높은 곳부터 고북마을, 산대마을, 고가소 마을이 위치하며, 수청마을은 고가 소 마을 쪽에 작은 고개 너머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경기도 수리산 자락에 위치한 속달동은 정승 17명을 배출한 동래 정씨들이 500여 년 이상 대대로 내려오는 종가집(경기 문 화재 자료 제95호)을 중심으로 세거해 온 곳이며, 친족조직 또한 선산을 배경으로 뚜렷이 발달한 전형적인 동족마을이다. 또한 동래 정씨들이 주로 세거해 온 속달 1동의 취락형태는 수리산을 배경으로 산등성에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고, 마을 앞으로는 넓게 농지와 하천이 펼쳐져 있다. 속달 2동에 속하는 덕고개와 납덕골은 속달마을에서 고개를 넘어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수리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따라서 펼쳐져 있는 취락지이다. 산음리의 경우에는 산음 1리(산대 마을, 고북 마을)와산음 2리(고가소 마을나)를, 속달동의 경우에는 속달 1동(이하 속달마을), 속달 2동(덕고개, 납덕골)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농지개혁 이전인 1950년 이전까지 산음리와 속달동에서는 토지소유를 둘러싼 생산관계가 견고하게 존재하였다. 산음리에서 지주/소작관계를 1950년 《분배 농지부》와 현지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이○○과 박○○ 두 지주는 주로 산대 마을과 고가소 마을에, 산음리의 경작지(주로논)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은 우봉 이씨 도암파로 서울에 거주하는 외지지주였으며, 박○○는 밀양 박씨로 이○○보다 더 많은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박○○가 일제시기 산음리에 거주하다가 해방전 경상북도 풍기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사실상 산음리에는 지주가 살지 않았다. 또 자기땅이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대개 소작을 부쳤다고 한다. 산음리에서는 지주/소작 관계에서 지주를 대신하여 마름이 소작지를 관리하는, 이른바 마름/소작 관계가 발달되어 있었다.15) 외지지주의 토지를 관리해 주는 마름이 마을에서 지주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서울 등지에 살고 있는 지주들은 소유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름으로 하여금 소작인을 감독하게 하고, 소작료

¹⁴⁾ 산음리의 네 번째 마을인 수청마을은 1960년대가 되어서 비로소 갖춰진 마을이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¹⁵⁾ 생산관계를 형식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게 되면, 마을 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주의 역할을 한 마름의 존재를 간과할 위험이 있게 된다. 마름/소작 관계는 지주/소작 관계의 일부이며 마름은 생산과정 상에서 지주를 직접적으로 대리하기 때문에, 마름/소작 관계를 생산관계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의 결정·징수·보관·운반 등을 맡겼다. 마름은 지주와 마찬가지로 소작을 배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속달 1동에는 부원군인 정난종(鄭蘭宗 1433~1489)을 파시조로 하는 동래 정씨들이 이곳을 사패지로 받으면서부터 세거해 왔다고한다. 속달 1동에는 정난종을 비롯한 동래 정씨의 선산이 있으며, 현재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원군파의 종가댁을 중심으로 종족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속달 2동에 속하는 덕고개에는 정난종의 아들이면서 영의정을 지낸 정광필(鄭光弼 1462~1538, 문익공파의 시조)의 후손인 정재윤(鄭載崙, 효종의 부마, 1648~1723)과 그의 처인 숙정공주(淑靜公主)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사패지를 포함한 속달동 주변의 농지와 임야는대부분 동래 정씨의 소유였으며, 동래 정씨 집안의 지주가 살고 있는속달동에는 당연히마름이 없었고, 소작지는 재지지주이며 부유한 몇몇동래 정씨들에 의해서 관리되었다. 동래정씨는 같은 집안끼리도 소작을주었는데, 소작료는 다른 성씨와 마찬가지로 반분병작이었다. 그러나다른 성씨에 비해서 소작지를 빼앗길 염려는 적었고, 같은 집안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을 내주어서 생계의 안정을 도모해 주었다고 한다.

산음리에서는 해방 전후로 화전민과 산판민의 이출입으로 가구수의 변동이 매우 극심했다(졸고 2005: 75의 표 4-5 참조). 1950년 전후로는 산음 1리와 2리가 각각 80가구 정도 되었으며, 2005년 현재는 각각 61 가구, 55가구에 달한다. 속달마을에는 동래 정씨 외의 성씨가 15-20호 정도 되었으며, 그 중에서 박씨, 김씨 임씨가 15호 정도 살았다. 양반집에 딸린 집까지 합쳐서 35호쯤이 되었다. 현재 속달마을에는 약 3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동래 정씨는 6세대이다. 덕고개는 각성받이 마을로 한국전쟁 당시 20호 정도가 살았으며, 현재도 20호 정도가살고 있다.

본고에서는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생산조직으로는 '두레', 의례조직으로는 '상례조직'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두 조직은 상호교환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간접적 호혜성10을 반영하는 사회조직, 즉 공동체라는 실체를 계속해서 생산해 내는 사회조직이다(졸고 2005: 5 장). 따라서 우리는 두 사회조직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공동체의 변화 를 파악함 수 있을 것이다. 두 지역에서 두레는 논매기를 위한 노동조직 이었을 뿐만 아니라 호미매기 등의 마을축제를 담당하는 사회조직이었 다. 상례조직도 구체적인 조직형태를 갖추지는 않지만, 사회적 관계가 '과습적으로' 일정한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사회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용된 구술자료와 역사자료는 (사)지역문화연구소 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한 마을전수조사를 밑 바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다. 조사과정 및 주변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간행 예정인 『군포 마을조사보고서(제목 미정)』(지역문화연구소, 군포시문화원 간행 예정), 『경기도 양평군 산음리 조사보고서』(지역문화연구소, 2004), 졸고 (2005), 『워시혁신도시개발지역 마을조사보고서(제목 미정)』(지역문화 연구소, 한국토지공사 간행 예정)를 참조하기 바란다.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마을주민의 증언을 직접 옮길 경우에는 의미전달의 편의를 위해 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안에 넣었다.

3. 농지개혁과 생산조직의 변화: 두레

집약적 농법 하에서 두레를 하게 되면 대토지 경작자가 소토지 경작

¹⁶⁾ 간접적 호혜성은 상호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손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관계, 곧 협동 (cooperation)적 관계를 말한다(Cooper 1984: 100). 증여자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증여한 그 사람에게서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어떤 사회적 관계가 간접적 호혜성을 띤다면, 연구자는 개별 당사자를 넘어서서 당사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실체(entity)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서 직접적 호혜성은 당사자 상호 간에 직접적으로 손이익을 계산하는 관계, 곧노동 교환(labour exchange) 관계를 말한다(Cooper 1984: 121). 직접적 호혜성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교환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만약 동일한 종류의 물건이 아니라면 왜 그것이 동등한 것으로 계산되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경향이 있다.17) 우선, 대토지 경작자는 노동력을 외부에서 구하기 힘든 생산과정 상의 특정한 시기에 비교적 더 많은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두레를 통해서 적기(適期)에 많은 노동력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다. 필요한 시기 안에 필요한 노동과 정을 마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만, 집 약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는 경작자 모두가 추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단순히 직접적인 노동력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대토지 경작자는 두레를 통해 자신의 토지에 받는 노동력보다 타인의 토지에 주는 노동력이 더 적기 때문에 이익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익은 시중 품값과 대토지 경작자가 지급하는 참과 품값을 전체를 놓고 비교해야 정확하게 파악 가능하다.

그럼에도 두레를 이와 같은 경제주의적 관점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최근 안승택(2007: 401-426)은 다양한 사례연구와 자료검토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두레의 해소과정은 자작농의 몰락/영세소작농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그 것의 지속은 경제적 강제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 강제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공동체'라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지 못했다. 공동체가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전근대적인 인격적 관계(한국에서는 반상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의 경제주의적 설명은 반상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지연적 실체, 즉 인격적관계를 간과하고 만다. 두레조직은 반상관계를 기초로 마을 내의 간접적 호혜성을 반영하는 공동체적 실체이다. 본 글에서는 두레를 경제적관계와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한 노동조직으로 바라보고 두레의 운영방

¹⁷⁾ 조경만(1986)도 이와 유사하게 충북 부여군 추양리 사례를 통해 대토지 경작자들이 두레를 더 선호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윤수종(1990: 114-132, 2003: 144-146) 역 시 "두레작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부농이나 지주들이었는데, 이들은 머슴을 내보내서 두레에 참여케 하여 많은 경지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한 두레작업에 대한 대가로 지주나 부농은 대개 두레작업 중에 술과 음식을 내며, 호미씻이 때에 비용을 기부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머슴에 대한 위로로서 머슴의 날을 정해 잔치를 벌이기도 하였다"고 말한다.

식과 1950년 이후 각 마을에서 일어난 변화, 두 측면 모두에서 살펴볼 것이다.

1) 산음리에서 두레조직의 변화

산음리에서는 1950년대 중후반까지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김매기만을 두레로 작업하였다. 산음리에서는 일제시기부터 산대, 고북, 고가소 등 마을마다 별도의 대두레가 있었다. 두레의 가장 연장자는 '영좌'라고 하였는데, 영좌는 '내 논 네 논 없이 논을 맬 때 사람을 이끌어갈 만 한 분', '말하면 무시하지 않고 들을 만한 사람'을 가리켰다. 두레중에서 산대마을이 가장 힘이 세고 다음이 고북 마을, 그리고 그 다음이고가소 마을이었다. 각 마을의 두레의 인원은 비등했지만 산대 마을이그래도 제일 많았다.

두레를 하면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地大本)이라는 영기를 들고 농악을 놀면서 논에서 논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다른 마을의 두레패와 두레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두레패들이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서로 만나면, 힘이 약한 두레가 힘이 센 두레에게 기를 들고 인사를 해야 했다. 이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무례하게" 굴면 두레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두레 싸움은 '어거지(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다는 뜻)'로 가장 힘이 센 산대 마을이 이겼다. 산대가 가장 센 것은 "배운 사람이 많고", 무엇보다 부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산음리에서는 산대 마을에 지주와 마름이 가장 많이 살았다.

산음리 두레의 경우 일할 때 식사와 참은 모두 5번이 제공되었다. 아침은 각자 집에서 먹고 술 한 번, 참 한 번, 점심 그리고 다시 술 한 번, 참 한 번을 먹었다. 참을 누가 제공할 것인가는 품값을 계산하여 땅이 많은 집에 맡겨졌다. 두레노동 할 때마다 논 주인이 음식을 내거나 품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논을 가진 마지기 수에 따라 한꺼

번에 계산하였다. 두레 품값과 시중 품값을 비교하면, 경작지가 넓은 사람이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산음리에서 지급된 두레 품값을 살펴보면, "오늘은 누가 점심을 해오너라, 누가점심에 술 가져오너라 하면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고, 그래도 남는 논이있으면 돈으로 내는데, 돈을 내면 두 마지기에 한 사람 하루 품값을 낸다".18) 품값은 보통 한 명의 장정이 한 마지기 일하는 비용을 기준으로하는데, 한국전쟁 이전에 품값은 쌀 5되였는데, 두레 품값은 쌀 2.5되(소두)에 불과했다. 즉 부자가 제공하는 식사와 술 값 등19을 제외하고품값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한국전쟁 시기 이전의 두레 품값은 시중품값의 1/2에 불과했다. 간단히 말해, 논매는 시기에 많은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토지소유자는 품값을 지불하고 외부에서 일꾼을 고용하기 보다는 두레를 통해 저렴하게 많은 노동력을 농사적기에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레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적기에 필요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대토지경작자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즉 시세보다 저렴한 품값에도 불구하고, 안승택(2005: 409-410)이 지적하듯이 두레로 논을 매는 작업은 세밀하지 못하고 조방하기 때문에 고용노동에 비해서 작업결과가 좋지 못했다. 게다가 토지소유자는 품값 이외에 식사와 참뿐만 아니라 '호미걸이'라는 농민축제를 위한 기금과 마을공동기금 등을 제공해 주어야했다. 고북 마을, 산대 마을, 고가소 마을이 하루날을 잡아서 다 같이 풍물을 치면서 놀기도 하였는데, 이 날의 음식은 잘 사는 집에서 마련해 주었다. 두레에서 두레노동을 하면서 먹는 음식과 중복 때 하는 '호미걸이'에 필요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넓은 토지를

^{18) 『}경기도 양평군 산음리 조사보고서』(지역문화연구소 2004: 54)

¹⁹⁾ 술 한 동이는 '백미 반 말 정도'였다. 점심이나 저녁은 1말이 20~30인분 정도 되기 때문에, 10인 안팎의 공동노동조직을 먹이기에는 반찬을 포함하여 1말 정도면 충분 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경작하는 사람이 조달하였다.

두레는 "오늘은 여기 논 몇 마지기를 하자"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내 논, 네 논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꺼번에 한다는 점"에서 여럿이 하는 품앗이와 다르다고 한다. 두레는 모든 가구가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노동력이 부실한 가구도 두레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를 "품 도둑질 한다"고 칭하는데, 병이나 기술부족 혹은 나이가 많거나 적어 성인 장정의 노동력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두레에 참여하여 "남들 만치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제 논도 다 매고 품값도 챙겨갈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영기를 꽂고 두레싸움을 하는 사례와 함께 두레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두레로 논을 매는 것은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일제시대 말기에는 하다 말다 하였고, 해방 후에는 산음 1리의 경우 한국전쟁이 나고 3년 정도까지, 산음 2리의 경우는 산음 1리 보다는 1~2년 정도 조직된 뒤에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수리시설이 완비되고 제초제가 보급되는 1970년대 후반보다 10년 이상 빠른 것이었다. 즉 두레의 소멸은 생산력의 변화에서 유인된 결과가 아니었다.

2) 속달동에서의 두레조직의 변화

전통적인 '반촌'인 속달동에서도 두레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산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논매기를 할 때에는 영기를 꽂고 풍악을 울렸으며, 이웃 마을과 두레싸움을 하기도 했고, 나이도 많고 지시를 잘하고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영좌'로 추대되었다. 속달동에서도 산음리와 마찬가지로 식사, 참, 술 등은 일을하는 토지의 주인이 제공하였고, 논매기가 끝나면 참석한 날짜, 논의마지기수, 제공한 음식까지 계산해서 돈으로 정산하였다. 정산하는 날에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호미걸이를 놀았다. 호미걸이에는 논매기

에 참여했던 두레꾼뿐만이 아니라 두레를 하지 않던 양반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곳의 두레는 세도가인 동래 정씨가 사는 덕분에 일제시기에 현 안산시 반월면 본오동, 팔공동과 함께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두레였 다고 한다.

속달동에서는 큰 양반이면서 부자가 살았던 덕분에 산음리와는 달 리 이들로부터 마을기금을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었고, 마을사람들은 이를 동네기금으로 모아서 동네일에 사용하였다. 두레는 "우선은 농사 짓기 위한 것"이었지만, "부잣집에서 술도 주고 쌀도 주면 동네기금으 로도 쓰고 정월이나 명일 때 노는 때는 날에는 배도 고플 때니까, 그 돈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줄다리기도 했다(정○○ 씨 1921년 생)"고 한다. 두레조직의 공동체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 씨(1921 년생)로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 그는 두레의 성격을 일종의 세력다툼이 라고 표현했다. 즉 "사패지를 받아서 사는 동래 정씨네 집안 측과, 또 다른 사패지를 받아서 사는 광산 김씨들이 사는 동네(속달동 건너편 마 을에 사는 또 다른 부원군인 광산 김씨의 마을을 지칭), 양 마을의 졸개 들이 양쪽 '부원군 밑창'에서 살면서 세력을 쓰는 것이다. 여기는 여기 대로 이 지역에서 터줏대감이면서 세도가이니까, 여기가 낫나 저기가 낫나하면서 세력다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속달동에서도 두레는 단순한 노동조직을 넘어서 공동기금을 모으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실천하는 조직이었다. 나아가 두레싸움, 두레놀이 등은 마을 내의 양반 이면서 지주(부자)를 포함하는 친족집단과 그 밖의 비-친족집단 간의 관계, 곧 '반상관계'를 기초로 조직되어 있던 '마을의 공동체적 특성'을 드러내준다.20)

²⁰⁾ 두레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부자가 살아야 한다는 점은 속달동의 이웃인 부곡동의 고랑치기 마을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고랑치기 마을에서는 1940년대 훨씬 이전에 두레가 사라졌고, 이후로는 일종의 '노동청부조직' 형태로 다른 마을에 노동력을 제 공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조직되었다. 그것도 마을 전체가 함께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이 마을에 두레가 없는 이유를 이 마을의 박○○ 씨(1933년생)는 "두레도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사람이 두레까지 할 수는 없다. 우선은 마을 사람들을 잘 먹여야 하는데, 이것은 마름이나 있는 사람(부자)들이나 할 수 있

두레노동에는 양반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양반집의 머슴들과 '아랫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속달마을의 '두레'에는 대략 15명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동래 정씨를 제외한 거의 모든 마을사람들이 참여했다. 속달동에서 두레는 전쟁 후에도 한참동안 조직되었는데, 1970년 대까지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덕고개의 김○○ 씨(1938년생)에 따르면원래는 속달, 납덕골, 덕고개 모두가 함께 조직하던 두레가 행정리가 1리와 2리로 분리될 때쯤 두 개로 분리되었다고 한다. 두레는 두 개로분리된 뒤에도 몇 해 가량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3) 농지개혁과 두레의 변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태진 1987, 주강현 1997)은 두레를 생산과정상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생산조직으로서만 파악하였고, '공동체 관계를 뒷받침해 주는 생산관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²¹⁾ 두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을 반영하는 사회적 관계이다(졸고 2005: 3장). 두레는 집약적 농법에 따른 집약적인 노동력 투입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이 반드시두레라는 특정한 형태의 노동조직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두레를 품앗이로 대신할 수도 있고, 품값을 지불하고 일꾼을 일시적으로 고용할수도 있다. 따라서 논매기 작업 시, 두레라는 방식의 생산조직을 이용한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요컨대 두레는 두 가지 조건, 곧 생산관계와 공동체적 관계를 반영하는 조직이었다.

두레를 유지시킨 가장 중요한 관계는 생산관계 상의 경제적 강제였

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마을조사보고서(미정)』(군포시문화원 2008년 간행 예정) 참조바람.

²¹⁾ 신용하(1987: 479)는 "두레는 마을 안에서 평민신분만의 조직이었으며, 실제로 생산 노동에 종사하는 자작농·소작농·머슴·농업노동자 등 근로농민만의 조직이었고, '민중'의 작업공동체"로 일면적으로만 파악하여, 지주/소작 관계라는 사회현상을 고 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고 보인다. 이 점은 산음리 사례에서의 농지개혁이 두레에 미친 영향을 통해서 매우 잘 드러난다. 현재 산음리 사람들은 두레를 공동체적인무엇,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함께' 돕고 살자고 했던 것이라고 기억한다. 부자는 돈을 내거나 음식을 마련해 주고, 가난한 사람은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부상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동체적인 관계에는 지주/소작관계 곧 토지소유권 혹은 마름/소작관계 곧 토지경작권을 둘러싼 미묘한 생산관계가 내재해 있었다.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은 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분배하였다.²²) 따라서 농지개혁 이후 마을 내에서 경작지를 비교적 많이 소작하던 마름은 많은 토지를, 적은 토지를 소작하던 사람은 적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즉 개별가구의 경작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농지개혁으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이 소작인에게 이전되면서, 지주/소작관계와 마름/소작관계, 생산관계가 해소되었다.

농지개혁이 시행된 직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산음리에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두레를할 수 있게 된 것은 1956년 이후였다. 그러나 두레는 몇 해 가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자기 땅을 갖게 된 소토지경작자들은 더 이상마름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었고, 개별 가구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두레에 참여할 직접적인 동기가 없었던 것이다. 지주나마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영기를 들고 경제적 필요성을인정받고 소작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실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 측에서도 1950년 중반 이후 피난민을 주축으로 외지로부터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품값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니었다. 두레가 사라져도 그다지 '아쉬울 것도 없다'는 한 마을주민의 표현은 두레

²²⁾ 산음리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나주군 궁삼면의 경우에도 농지개혁을 통해 경작자에 게 우선적으로 분배하여 소유하도록 하였는데, 개별 가구의 경작규모는 농지개혁 이 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즉 경작규모의 불평등은 변하지 않고 이어졌다(함한희 1991: 44).

가 사라지던 상황에 대한 상호 간의 입장을 적절히 드러낸다.23)

산음리에서는, 비록 기존의 지주·마름과 소작인 간의 경작규모의 불평등은 지속되었지만, 지주/소작 관계는 1950년 농지개혁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반면에 속달동에서의 농지개혁은 산음리 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가 많았고, 따라서 농지개혁 이후에도 동래 정씨 문중소유의 위토와임야 및 개인 토지가 속달마을을 비롯해 속달 2동에 1970년대까지 상당부분 잔존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남한의 농지개혁은 북한의 점수제와 같은 완전한 형태의 토지분배가 아니었다. 농지개혁법 第六條(1949. 6. 21 法律 第31號)에 따르면 1. 農家로서 自耕 또는 自營하는 一家當 總面積 3町步 以內의 所有農地 但 政府가 認定하는 高原, 山間 等 特殊地域, 2. 自營하는 果樹園, 種苗圃, 蠶田, 其他 宿根性作物을 栽培하는 農地, 3. 非農家로서 小規模의 家庭園藝로 耕作하는 500坪 以內의 農地, 4. 政府, 公共團體, 教育機關 等에서 使用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政府가 認定하는 農地, 5. 公認하는 學校, 宗教團體 及 厚生機關 등의 所有로서 自耕以內의 農地 단 文教財團의 所有地는 別로히 定하는 토지, 6. 學術, 研究 等 特殊한 目的에 使用하는 政府認許 範圍內의 農地 7. 墳墓를 守護하기 위하여 從前부터 小作料를 徵收하지 아니하는 旣存의 位土로서 墓毎 1位에 2反步 以內의 農地, 8. 未完成된 開墾 及 干拓農地(단 旣完成部分은 特別補償으로 買收할 수 있음), 9. 本法實施以後 開墾 또는 干拓한 農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서 세 가지 지점이 문제가 된다. 우선 1번 조항인 분배상한선

²³⁾ 두레와 농지개혁 간의 관계를 조사한 기존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대전직할시 대덕구 송총동 송촌에서는 해방 후 두레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로 '토지개혁으로 얼 마간의 땅을 받게 되자 두레가 별로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쓰고 있다(『두레』 1994: 568). 이 마을은 1990년 2월 당시까지 과거 지주층인 송씨들과 소작인 간의 관계가 매우 적대적이었다. 이 마을의 지주는 농민축제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고 한다.

'3정보'의 문제이다. 1948년 미군에 의한 귀속농지분배 당시 미군정법 령 173호에 의한 분배기준은 2정보였다. 2정보로 정해진 것은 1947년 에 신한공사가 587,974호의 관리소작인을 조사한 결과 경영규모 2정보 까지가 전체의 99.8%였음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가족노동력만으로 경 작 가능했던 농지의 상한규모는 대략 2정보였으나, 1950년 농지개혁법 은 분배상한기준을 3정보로 결정하였다. 즉 농지분배가 이루어진 이후 에도 2정보를 초과한 나머지 1정보는 계속해서 머슴을 고용하든가 소작 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⁴⁾. 이 조항은 9,000평 이상의 대농들이 약간의 머슴을 고용하거나 소작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 농지개혁법은 墳墓를 守護하기 위하여 從前부터 小作料를 徵 收하지 아니하는 既存의 位土로서 墓毎 1位에 2反步 以內의 農地을 분 배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농지개혁 이후에도 문중에게 토지재산을 남겨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세 번째, 임야, 택지 등 농지가 아닌 땅은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임야는 인구가 밀집했던 지역에서 는 농지에 버금가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1970년대 늦어도 1980년대 이전까지 나무는 남한의 주요 연료자원이었다. 산이 전국토의 약 70% 를 차지하는 한반도일지라도 서울, 수원 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나무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즉 임야는 농지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는 토지였던 것이다. 장시의 시 전(柴廛)에서 땔감은 곡식과 마찬가지로 쉽게 현금이나 다른 현물로 교 화될 수 있는 재화였다.25)

²⁴⁾ 이러한 농지를 허용한다는 것은 '경작유기전'을 표방했던 농지개혁의 이념에 모순된다(김성호 1989: 587-591). 3정보 상한규정은 1949년 6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정보로 제한하여 "머슴사리도 할 수 없다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朴海楨(민주당원, 소지주)의 주장이나, '2정보라는 계약을 받았다면 조영규가 오늘 이 자리에 양복을 입고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조영규(한민당, 대지주)의 주장에서 농림부의 2정보案이 아닌 3정보案이 가결되게 된 원인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여하간 가족경작가능 면적을 초과하는 3정보라는 규정은 지주에게 약간의 소작지와 머슴고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²⁵⁾ 임야는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농지만큼 소유자가 잘 통제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지 만, 임야가 위토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되었던 사례는 시흥시 광석동 나본들 마을

속달동에서 두레가 농지개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1 번, 7번 조항이 초래한 농지개혁의 한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일제시기 속달마을의 동래정씨는 해방 이후로도 300~400석 정도를 가진 집이 3~4집 정도 되었다. 토지개혁 이후로 대부분의 토지가 경작자에게 배분되었지만, 위토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분배되지 않았다. 속달마을에는 동래 정씨의 선산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묘에 할당되는 위토는 전부 20여 군데가 넘었으며, 이를 관리하는 소작인도 대략 10명이 넘었다. 위토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묘를 관리하는 대신에 소작료가 낮았기 때문에 '잘 보여야' 얻을 수 있었다. 또 동일한 성씨에게는 위토를 잘 맡기지 않았는데, 그것은 타성에게 주어야 '거친 일'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동래 정씨 2~4집이 위토를 경작하기도 하였지만, 이내 1980년대에 들어서서 많은 위토가 저수지로 편입되면서 속달마을 내부에서 위토를 둘러싼 생산관계는 사실상 해소되어 버린다.

덕고개 마을의 경우 무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래 정씨의 위토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농지뿐 아니라 농지개혁에 포함되지 않는 임야, 택지 등까지 덕고개의 대부분의 토지는 동래 정씨 집안의 개인소유였다. 예전에는 정씨네 집에서 소작을 나누어주었는데, "도지를 잘해서 가져가지 못하면 떼어갔고, 농사지어서 거의 정씨네 가져다주다시피"하였다. 일제시기에 동래 정씨 문익공파 후손의 농지와 임야의 상당부분이 일본인에게 넘어가서, 해방 이후 적산(敵産)으로 미군정에 의해 실시된 토지개혁을 통해서 경작자에게 분배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개인 토지가

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광석동 나본들에서는 해방 전까지 하동 정씨가 대성으로 다른 성씨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동 정씨들은 나본들 일대에 70여 정보의 종산을 가지고 있었다. 하동 정씨 집안에서는 종산에 구역을 정해주어서 산이 없는 사람들이 땔나무를 해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대신에 사람들은 시제 때 교자를 매고 다니면서 제물을 나르는 일을 하였다. 묘소에서 제를 지내기 때문에 제물을 나르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광석동에 사는 타성이었다. 해방된 뒤에일가 사람이 종산의 일부를 팔아버린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지역문화연구소, 2005, 『시홍시농촌문화보고서』).

동래 정씨의 손에 남아있었다. 심지어 1950년 농지개혁 이전에 방매가 이루어지고 농지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도 동래정씨의 개인재산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박○○ 씨(1938년생)의 증언에 따르면 "전쟁 이후로도 덕고개의 1/2 정도의 토지"는 동래 정씨가 가지고 있었다. 남아 있던 개인재산이 사라진 것은 1950년 말부터 1970년대까지마을 주민들이 차츰차츰 구입하면서이다. 현재 동래 정씨 소유의 재산은 덕고개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덕고개에서는 토지개혁, 농지개혁, 개인적 구매를 통해서 197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생산관계로부터 해방되었다.

농지개혁 이후에도 속달동에서 두레가 장기간 지속된 원인은 농지 개혁의 '불완전성'이었다. 농지개혁 후에도 동래 정씨 문중소유의 토지와 개인소유의 토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농지개혁 이후로도 속달마을의 경우 마을 내에 거주하는 타 성씨 15가구 중 10여가구 이상이 동래 정씨의 위토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속달2리의 경우에서는 많은 개인 토지가 여전히 동래 정씨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두레는 농지개혁 이후로도 비교적 강고하게 남아서 1970년대 이후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즉 산음리와 달리 속달동에서 농지개혁은 지주/소작관계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물론 속달동에서두레가 지속된 원인을 속달동 주변지역(수도권지역)의 도시화와 함께진행된 이농현상에 따른 노동력수급상황의 변화 및 토질의 차이, 관계방식 등 생산력 상의 차이26 등에서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²⁶⁾ 이 밖에도 농지개혁의 대상이기는 하였지만 생산력이 낮아서 거의 가치가 없던 농지는 잘 분배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원주시 반곡동 사례인데, 이 지역의 토지생산성은 매우 낮아서 한 마지기에 벼 두 가마를 밑돌았다고 한다. 심지어 한 마지기에 한 가마니도 못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박○○ 씨(1932년생)에 따르면 다 합쳐도 한 가마가 안 나와서, '둥그마리' 4개에 나누어 담는 게 전부였다고 한다. 농사로는 노동력의 대가조차 나오지 않아서 지주들은 소작료를 거두어갈 엄두도 못 내었다고 한다. 심○○ 씨(1935년생)에 따르면 당시에는 타작하는 날에 지주를 입회시켰는데, 워낙 수확이 나지를 않으니까 "자네나 먹지 그러냐"고 말했다고 한다. 엄○○ 씨(1936년생)에 따르면 농지의 가격이 낮아서 "돼지1마리이면 논 5마지기를 살수 있었다"고 한다. 이곳의 주요 생계수단은 농업이라기보다는 '산판', '숯산판', '축

생산관계의 변화와 친족관계, 그중에서도 특히 생산관계의 변화가 마을 공동체를 보여주는 사회조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다음 장에 서 분석될 상례조직의 변화를 통해 보다 뚜렷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농지개혁과 의례조직의 변화

1) 산음리에서 상례조직의 변화

산음리에서 1950년 이전의 상례는 반상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의례 였으며, 관습적으로 마을구성원 전원에게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 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의례였다. 1950년 이전에는 양반집에 상이 나거나 혼례가 있으면, 한 마을의 '하인' 수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고북 마을과 산대 마을과 고가소 마을의 '하인'들이 함께 양반집으로 찾아가서 갖가지 궂은 일을 해주었다. 산음리는 각성받이 마을이었지만 마을마다주요한 성씨가 몇몇 있었다. 고북 마을에는 평양 조씨와 인동 장씨, 산대마을에는 밀양 박씨, 남원 윤씨, 우봉 이씨, 고가소 마을에는 경주 김씨와 우봉 이씨가 있었다. 이들은 마을 내에서 '양반' 행세를 하였는데, '양반'과 비양반인 '하인'을 구분하는 사회적 지표는 '글을 아는가', '상여와 가마를 메는가', '가축을 잡는가'였다. 양반은 상여와 가마를 메지 않았고, 제 집의 가축도 스스로 잡지 않았다. 마을에서 '양반' 대신에

산'이었고, 농지의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농지개혁 당시에 '자발적으로' 농지를 분배받지 않은 소작농들이 많았다. 이후 농지의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었는데, 주된 계기는 1960년대 이후 저수지 축조와 지하수 개발이었다. 이후 전업농들이 늘어나고 1960년대 이후 가구수도 늘어갔다. 그러나 급격한 생산성 증가와 주변 지역의도시화로 인해서 농지에 비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났다. 또 농지개혁의 '자발적 실패'로 인해여 농지개혁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더욱이 주된 수입원이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숯산판, 산판, 축산이었기 때문에 부의 편중은 오히려 강화되어 나갔다. 이곳에서는 두레는 1980년쯤까지 지속되었고, 두레노동에서는 지주와 소작농 간의 호혜적 관계를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의례조직은 본래부터 마을의 가구수가 적고 조방하게 분포되어 있던 까닭에 일제시기부터 계속해서 반상관계를 기초로 조직되지 않았다(『원주시 혁신도시 조사보고서(가제 간행 예정)』의 반곡 1통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양반집 일을 봐준 사람은 '하인', '상놈'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었다. 상여와 가마는 산음리 전체에 하나가 있었는데, '양반'은 일이 있을 때 마다 세 마을의 하인들에게 '상여 들어라, 가마 들어라' 시키면 되었 다.²⁷⁾

이 같은 반상관계와 상례조직은 한국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와해되고 만다. '해방 이후 차츰 유학²⁸⁾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지지만, 완전히 상여조직이 '유학'을 통해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1950년부터였다.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혼례와 상례를 치룰 때 상하관계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마을주민들은 해방 후에 이미 '상하관계가 와해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마을사람들이 치룬 혼례와 상례를 실제로 살펴보면 1949년에 치루어진 사례에서도 '상하구분'은 명확히 존재했었다. 마을의 상례에서 상하관계가 사라진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²⁹⁾이었다. 1950년에 '유학계'라는

²⁷⁾ 경기무형문화재 상여·회다지 소리의 보유자인 박○○ 씨(1924년생)의 사례는 상례조 직이 내포하는 신분관계를 확연히 보여준다. 그는 화성시 팔탄면 ○○리에 거주하고 있다. ○○리는 세 부락 약 150호로 이루어진 큰 마을이었는데, 해방 이전 ○○리의 박○○ 씨 마을에서 "상여 메는 일, 가마 메는 일, 개 잡는 일, 상여소리를 내는 일" 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양반들이 개를 잡으면 떨려나가는" 시절이었 다. 해방 전후에 하인이 없어지면서 '양반'들끼리 상여계를 만들어 서로 상여를 매주 어야 했다. 양반들도 상여를 매개 되면서 선소리꾼으로 '양반'에 속하던 박〇〇씨가 나서게 되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하인들과 어울리면서 상여·회다지 소리를 배우게 되었는데, 기억력이 유난히 좋았고 노래도 잘 불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목 소리가 좇다", "그런 목소리가 없다", "박ㅇㅇ씨 밖에 없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한 다. 박○○씨가 상여소리를 "처량하게" 잘 한다고 소문이 나자 상여소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박○○씨는 거절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옛날만 해도 상여소리 하면 상놈이라고 하여 '사람 취급' 도 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상여소리를 전수하고 있지 않으며, 무형문화 재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하다. 그에게 무형문화재는 노래를 잘 해서 받은 일종의 상품일 뿐이다(서울대학교 박물관 및 경기도청, 2007, 『경기도 무형문화재 자생력 강화방안』).

^{28) &#}x27;유학계'라는 조직은 경기도 동북부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용어이다. 정승모(2002)에 따를 때, 유학계는 양반가계 출신들이 자기들끼리만 상여를 메고 장 례를 치르기 위해 결성된 것이다. 이는 양반이 더 이상 '하인'을 동원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반상의식은 없어지지 않아 양반들이 하인을 배제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상여계를 조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산음리에서는 정승모(2002)의 사 례와는 다소 다르게 '유학'은 반상관계가 사라진 뒤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 여준다.

새로운 상여조직이 나타났고 1955년 사례에서는 더 이상 신분관계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신분관계는 1950년에 완전히 사라졌다. 즉 신분관계가 농지개혁을 기점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던 것이다. 농지개혁이 마을 내에서 지주/소작관계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반상관계를 반영하는 상례조직도 함께 해소해 버렸다. 이전의 반상관계를 대신하여 1950년에 상례를 치루기 위해서 '유학계'가 조직된다.

1950년 이전에 양반집에 상이 나면, 세 마을(고북, 산대, 고가소)의 하인들이 함께 양반집의 상여를 메주고 일을 봐주었다. 대신에 양반은 하인들이 먹을 음식을 챙겨주었는데, 이를 '반포'라고 하였다. 이전에 제사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 마을의 하인들을 동원하여 음식을 먹이면서 상을 치룰 수 있는 '양반'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에 유학이 되면서 양반들도 상여를 메게 되었고 더 이상 상주는 상례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제 다른집에 상이 나면,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챙겨가야 했는데, 이를 '군반미'라고 하였다. '상이 나면 군정미(혹은 군반미)라고 쌀 1되씩 자기 먹을 것 가지고 가서 너도 나도 메는 것이 유학'인 것이다.

'유학계'는 1950년에 반상관계가 해소되고 과도적으로 생긴 상례조 직으로,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상여와 가마를 돌려가며 메기 위해'만든 조직이었다. 유학계는 조직 자체의 형식이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었다. 수청마을의 백으으 씨(1935년생)에 따르면 '유학계'가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이중계와 다른 점은 이중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라 '합동으로 일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당시 유학계는 마을단위의 대동계로 확대되어 나가지 못하고, 마을 내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품앗이 하는 형태를 띠었다. 유학계가 생긴 것은더 이상 하인, 상민들이 양반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부터이다. "농지분배로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면서", "상여를 메라고 하면 딴청을 피우고

²⁹⁾ 이 마을은 '산골마을'이라서 그런지 마을사람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를 1950년 이 아니라 1951년으로 기억하고 있다.

싫어하고 해서", 양반도 상여를 메게 되었다. 이제 "반상관계가 약해지고 돈 있는 사람이 양반이" 되었다. 이전과 같이 산대마을에서 상여, 가마, 그릇 등을 공동으로 관리·유지하였지만, 상례와 혼례는 고북, 산대, 고가소가 각각 따로 지내게 되었다.

이후 각 마을의 유학계가 마을단위의 대동계로 확장되어 현재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이다. 1950년대 후반 '국민군'으로 징병되어 나갔던 장정들이 돌아오고 마을이 안정되면서 고북, 산대, 고가소는 각각의 상여를 마련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이중계 문서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고북 마을은 1957년, 산대마을은 1958년, 고가소 마을은 대략 1950년대 말에 각각상여와 가마를 마련하고 이중계30)를 조직하였다. 현재 1994년부터 수청마을과 고가소 마을은 이중계를 합치고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또이 이중계 문서를 분석해 보면, 이중계의 주된 활동은 상여를 보수·구입하고 상례에 필요한 유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기금을 관리하는 일이었다(졸고 2005: 63-69).

2) 속달동에서 의례조직의 변화

1980년 이전까지, 속달마을, 덕고개, 납덕골에는 마을상여가 하나 있었다. 상여는 마을기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 구입해 놓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원래 동래 정씨네 집에서 상이 나면 같은

³⁰⁾ 고북 마을 이중계 문서는 1957년부터 1993년까지, 산대 마을 이중계 계원명부, 이중 계 유물명부, 이중계 통문, 현금출납부는 1958년에 시작되었지만 1967년부터 2000년 까지 남아있다. 수청 마을의 이중계는 1962년에 결성되었고, 수청 마을의 이중계 문서도 1962년부터 남아있다. 기금은 쌀 1되씩(가을) 콩 1되씩(봄)을 걷어서 마련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이중계 기금으로 방아를 구입하여 사업을 벌였지만 '잘못된 기계를 구입하여' 방아사업에 실패하였다. 그 후 2년 뒤인 1995년에 고가소 마을과 이중계를 합치게 되었다.

집안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안일처럼" 일을 하였다. 산음리와 마찬가지로 속달동에서는 현재의 속달마을, 덕고개, 납덕골의모든 '아랫사람들'이 찾아와서 일을 해 주었다. 한국전쟁 이전에 동래정씨들은 주로 5일장을 했는데, 이후로는 부잣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일장을 지내게 되었다. 상이 난 집에는 얻어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마을의 '아랫사람들'이 일하러 모여들었다. 상이 나면 저녁에 와서 밤을 새워주는 대신에 먹을 것을 든든히 챙겨주어야 했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을 번거롭게 장기간 동원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돈도 많이 들고 복잡했기 때문에 더 이상 5일장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3일장으로 대체하게되었다.

속달동에서 상여를 다른 성씨들이 맨 것은 대략 30년 전까지라고 한다. 정○○ 씨(1921년생)의 부친(갑오년 1894년생)이 86세에 돌아가 셨는데, 그때도 다른 성씨들이 상여를 매주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적어도 1970년대 말까지, 납덕골과 덕고개 주민들이 "동래 정씨 들에게 더 이상 상여를 메지 않겠다고 통보할 때"까지 속달동에서는 '반상유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속달마을을 포함하 여 덕고개, 납덕골의 '아랫사람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동래 정씨 집 안의 사람들은 상여를 멜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로 속달2 동과 상여조직이 분리되면서, 속달마을 내의 아랫사람들이 전부 합쳐도 15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래 정씨의 집안사람들도 상여를 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래 정씨 이외 마을사람들이 상여를 메지 않게 되면서 필요한 적정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동래 정씨라고 빠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의사에게 일을 맡기면 서 상여 자체를 사용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속달마을에는 현재도 새로 구입한 상여가 있지만, 거의 사용한 적이 없으며 최근에 예술경연 대회에서 가져다 사용한 정도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화장을 하게 되면서 상여를 사용하지 않고 차에 싣고 먼 곳으로 운반해 간다.

산음리와 달리 속달동에서는 1950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세 마을의 '아랫사람들'이 동래 정씨의 상여를 메주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도 산음리의 '이중계'와 같이 마을 전체의 조직이 속달동에서는 결성되지 못한다. 1980년쯤이 되어서야 비로소 속달 1리(속달마을)와 속달 2리(납덕골, 덕고개)는 각각의 상여조직을 꾸리게 된다. 강력한양반이 세거해 온 속달동에는 산음리에 비해서 반상관계의 유제가 늦게까지 강하게 남아있었다. "예전부터 상이 나면, 잘사는 집 밑에는 그집에 일해주거나 토지를 받아먹고 사는, 소위 '비부'라는 노예가 있었다. 그들은 양반 밑창에서 얻어먹고 심부름하였는데, 지금도 계속해서살고 있는 집이 몇 가구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1950년대쯤에 이러한 반상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반상관계라는 '인격적 관계'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상관계라는 '인격적 관계'는 일종의 후견인 관계(client-patron)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속달동의 동래 정씨들은 지주이면서 세력가로서 세 마을의 '아랫사람들' 위에 군림했지만, 반대로 대대로 소작권을 보호 해 주었고 흉년 시에는 소작료를 감면해 주었으며 마을 내외의 갈등을 조절하고 행정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보조해 주었다고 한다. 속 달동의 정○○ 씨(1921년생)는 "○○의 유명한 집안들은, 동래 정씨와는 달리 종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해서 해방 이후에 많은 일이 생겼다. 종들이 나가서 공부해서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서 산소도 고치라는 등 상전에게 못되게 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래 정씨들은 해방 이후 진행된 토지개혁과 농지개혁 이후 개인토지의 매매와위토의 저수지화(1983년) 등으로 인하여 차츰 경제적 우위를 상실하였고, "지금은 따질 것도 아니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소위 후견인(client-patron)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었고 "더 이상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없게 되었다.

3) 농지개혁과 의례조직

산음리와 속달동의 사례는 해방 이후 마을 내에서의 의례적 변화를 통해서 한국에서 신분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친족관계, 생산관계에 따라서 마을마다 상이한 경제적 관계에 놓여 있었고, 이에 따라 '반상유제'가 지속되는 양상도 상이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 상유제는 차츰 해체되어 나갔고, 결론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지만, 이 반상유제의 해체는 마을 내의 '양반'과 '하인'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소위 '양반문화'를 무너뜨리고 '유교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사실 20세기 중반이후 조직된 마을조직들은 대부분 상례를 치르기 위한 조직이었다. 이 조직들은 반상관계에 기반한 '공동체'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상례를 치르려는 공통된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앞의 두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지역적으로 시기는 상이하지만, 농지개혁 이후의 상례조직들은 마을 내의 갈등을 상쇄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만한 수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마을' 단위로 상례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수를 일정수준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다. 상례는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된 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이지만, 반상관계를 뒷받침하는 생산관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양반들'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례를 치룰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승모(2002)가보여준 바와 같이 마을 내의 '양반들'은 '유교적 상례'를 치루면서도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들을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개해 나갔다. 외부에서 상여꾼을 구입하기도 하고, 양반들끼리만 상여를 메는 '유학계'를 결성하기도 하였고, 반상구분을 없애고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대동계를 맺기도 하였다.

친족조직과 재지지주가 발달하지 않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외부에서 품을 사기도 어려웠던 산음리에서는 '유교적 상례'를 지키기 위해서반상관계를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마을구성원이 동등한 구성원

으로 가입하는 '이중계'를 통해서 유교적 상례를 '동일한 방식'으로 치루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농지개혁이 가져온 부의 분배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산음리에서 의례가 이루어지는 지리적 범위는 일정하지 않았다. 1950년 이전의 마을 의례조직(상례, 혼례, 산신제)의 구성 원리는 양반/하인관계, 지주&마름/소작관계를 반영하는 신분관계와 경제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졸고 2005). 1950년 이전 마을은 3개의 구로 나뉘어 있었지만, 모든 의례는 3개 구가 함께 치루었다. 그래서 유물(집기, 차일 등의 공동재산)도 산대 마을에 보관해 놓고 세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 이후 '양반'이자 마름들은 '하인'이자 소작인에게 '천한 일'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게되었고, 그러면서 1950년에 나타난 것이 생긴 유학계이다. 1950년대초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마을 내의 장정수가 줄어들었지만 이전에는 참여하지 않던 '양반'이 참여했기 때문에, 비록 유물은 마을 전체에서 구입하고 관리했지만 상례와 혼례는 세 마을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마을 (고북, 산대, 고가소)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로 각 마을 내부적으로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의례를 치룰 수 있는 인원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상여를 메지 않는 '양반 층'이 사라지면서 각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상례와 혼례를 지낼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났다. 따라서 각 마을들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1950년대 중반 이후 갹출하여 이중계 기금을 마련하고 상여를 구입하여 각각의 마을에서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유학계'를 탈피하여 각각의 이중계를 조직하게 된다. 1957년에는 고북 마을이 나무를 팔아서 상여를 마련했고, 다음 해인 1958년에는 산대 마을이, 1962년에는 수청마을이 각각 새로 상여 및 유물을 장만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은 채 마을구성원을 양반/하인이라는 신분으로 나누고 하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했던 1950년대 이전의 상례조직보다, 1950년대 이후의 '이중계'는 대부분의 마을 구성원이 일정한 가입비를 내고 가입해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이중계는 일정한 가입비만 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이었고, 또 마을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조직도 아니었다. 다만 이중계에 가입하지 않은 집에 상이 나거나 혼례가 있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의 일을 봐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중계에 가입하지 않은 기구에서는 상이 나도, '뒷짐 지고 멀뚱이 보고 그냥 지나갔을' 뿐이다.

5. 결론

1) 농지개혁과 마을민속변화

해방 이후 한국에서 마을공동체는 원리상 지주(마름)/소작 관계를 전제로 한 인격적 관계, 즉 신분관계에 기반하고 있었다. 한국 농촌공동체의 구성원리는 "지역주민들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의식이서로 얽힌 비형식적 평등관계(한상복 1983: 147)"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척점이라고 간주되어 온 생산관계와 신분관계에 있었다.31) 이만갑 (1973)과 이만갑 & 브란트(1979)는 여러 촌락을 비교하면서 민촌이나거의 하나의 성씨로 이루어진 동족촌락이 마을 통합력이 강하고, 양반과 상민이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거나 여러 성씨의 양반이 사는 마을은 통합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브란트(1962)의 표현32)으로 바꾸어 말

³¹⁾ 이는 생산관계의 개념에 지주/소작 관계뿐 아니라 마름/소작 관계를 포함시켰고, '양 반'의 개념도 군현단위에서 인정되는 '양반'(송준호 1989)이 아니라 리(里) 단위 혹은 보다 작은 마을단위에서 인정되는 양반으로 확장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한국의 다양한 민속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산관계와 신분관계 등의 개념을 일반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³²⁾ Brandt(1962: 36)는 평등한 굼라오(gumlao) 구조와 위계적인 샨(shan) 구조를 대척점 에 놓고 그 과정 선상에서 미얀마사회의 정치구조를 분석한 Leach(1970)의 이론을 빌려서, 한국사회의 촌락의 정치구조는 위계성과 평등성이라는 대척점 사이 어느 지

하면, 한국의 마을 공동체는 평등적인 지연성과 위계적인 혈연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위계적 혈연공동체는 다른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에 배타적이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적 지연성에 대립되는 위계적 혈연성의 출현은 지주제와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에서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살폈듯이 본래부터 위계적인 혈연성이 평등적 지연성과 배타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산골짜기의 산음리라는 '보잘 것 없는 마을'에서도 반상관계가 공동체 조직원리의 근간이 되었다. 조선시대와 같은 의미의 '양반'은 아닐지라도,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나 그 친인척들은 토지를 대차해 주고 경제적 강제를 통해서 '하인'을 부리며 생활 속의 '양반' 행세를 하였다. 위계적 혈연성과 평등적 지연성이라는 두 원리의 극단적 대립은 양반이하인을 동원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잃어버린 바로 그 상황에서도 반상의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요컨대 한국촌락사회에 대해 위계적인 혈연공동체와 평등적인 지연공동체라는 이분법적접근법(Brandt 1962: 25-26; 한상복 1983: 147)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마을 내 위계적 혈연공동체인 친족관계가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산음리에서조차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1950년대 이전까지 속달동과 산음리 모두에서 두레조직과 상례조 직은 호혜적 관계가 '공동체'를 경유해서 맺어지는 '간접적 호혜성'을 보여주었다. 부농과 빈농 간의 교환은 공동체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두레를 꾸리고 함께 김매기를 하며 이웃마을과 두레 싸움도 하고 마을기금을 모아서 축제를 벌이기도 했다. 논매기가 끝난 뒤에 품값을 계산하는 등 직접적인 교환도 나타났지만, 마을에서 부유한 사람이 기금을 출연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축제를 열었다는 점에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마을의 두가지 구조적 성격, 위계적인 혈연성과 평등적 지연성을 '대척되는 관념체계들(contrasting ideal systems) 간의 구 조적 변이(structural variation)'로 설명한다.

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상례의 경우에도 공동체적인 의무에서 상이 나면 마을주민 전원이 모여서 삼베옷을 짜고 통문을 돌리고 일을 도왔으며, 특히 '하인'들의 경우에는 가축을 잡고 상여를 매는 등의 갖가지 궂은 일을 도맡았다. 물론 대신에 상이 난 '양반'집에서는 3일이나 5일 간 마을사람들에게 식사와 참과 술을 내주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산음리와 속달동에서 두레조직과 상례조직에서 공동체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각각 1950년대 중후반 이전과 1980년 전후로 상이했다. 두 지역에서 공동체가 사라진 시기적 차이는 무엇보다 양 마을이 놓여있던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이했기 때문이다.33) 산음리의 경우에서 지주(마름)/소작관계는 해방 이후 진행된 농지방때, 1948년의 토지개혁, 1950년의 농지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어, 신분관계, 생산관계를 반영하던 생산조직과 의례조직은 사라지거나 변형되고 말았다. 반면에 속달동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의 '불완전성'으로인하여 지주/소작관계가 일정부분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조직과 의례조직은 반상관계를 반영하는 형태로 1980년대 초까지 지속될 수있었다.

농지개혁이 한국농촌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각각의 마을이 놓인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상이했다. 본 논문에서 마을을 구성하는 친족관계와 생산관계의 성격이 매우 상이했 던 두 농촌마을에 현지연구를 통해서 농지개혁이 마을공동체에 미친 영 향이 상이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두 가지 요소 외에도 경기도와 강원 도 몇몇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토지생산성, 산림환경, 빈부차이 등 다양 한 요소가 농지개혁 이후의 마을공동체에 영향이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³³⁾ 물론 속달동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농촌사회에서 마을 내의 사회적 관계가 매우 견고하여 변경시키기 어렵고, 생산관계가 사라진 이후에도 반상의식이 남아서 많은 하위계층들이 마을을 떠나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 어떤 요인보다는 생산관계의 변화가 마을 내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2) 반상관계의 해소와 '문화적 인간화'

두 지역에서 반상관계는 생산관계의 해소(지주/소작관계의 해소)와 함께 사실상 해소되었다. 물론 반상관계가 해소가 반상의식 자체의 해 소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많은 지역에서 반상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음에도 반상의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 남았다. 그러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버린 반상의식이 이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했다. 그렇다고 반상관계와 반상의식의 해소가 '유교문화'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유교문화'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 나갔다. 1950년대 이후로 산음리에서는 예전의 '하인'을 포함하여 이중계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은 마을주민인 계원들을 동원하여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유교적 상례를 치룰 수 있었다. 산음리보다는 반상의 식이 오래 유지되었던 속달동에서도 '아랫사람들'은 마을 내에서 문중 을 조성하고 시제를 올리기도 했고, '신분' 차별이 존재하는 지역단위를 넘어서 전국적인 규모의 종친회에 가입하기도 했다. 오카다(2000: 282-286)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의 왕족이나 유명한 선조에게서 정체성 을 찾는 현상도 나타났다. 오카다(2000: 282-286)는 이 같은 과정을 한 국 민족주의의 발달과 관련시키고 있지만, 필자는 이 같은 현상을 '문화 적 인간화' 혹은 '유교적 인간화'로 설명하고자 한다. 산음리에서는 1950년 생산관계가 해소되어 반상관계가 사라진 상황을 소위 '유학이 되었다', '양반과 상놈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평등하게 되었다'고 설명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양반이 되었다 혹은 모두가 비상민화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가 똑같이 '인간의 도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이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유교문화'를 흔히 다른 연구자들이 말하는 '양반문화'와 분명히 구별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을 내에서 '양반 문화'는 생산관계와 친족조직을 기반으로 '양반'과 '하인'을 만들어 내 는 문화이다. 열악한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양반이 두레에 참여하지 않고 상여도 메려고 하지 않는 등 불평등한 인격적 관계로 인하여 '하인'들은 생산관계의 해소 이전에는 '정상적인 유교의례'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생산관계의 해소와 함께 '하인'에게만 '천한 일'을 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었던 '양반문화'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또경제적 이해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노동조직과 의례조직에 봉사하던 '하인'들 역시 존재할 수 없었다. 이제 '하인'들은 천한 일을 거부하고 과거의 '양반들'에게 자신들과 동등한 의무를 요구했다. 이로써 마을공동체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제 '하인'들은 더 이상 양반들이 제공하는 호혜적인 '술과 음식'을 얻어먹을 수 없었고, 대신에 기금을 갹출하여 상포계를 조직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부모를 상여로 모시고 문중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조직에 가입하는 등 '유교적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사실 양반과 하인이라는 인격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양반' 과 '하인'이라는 범주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195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가 '양반화(이광규 1986)'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도, '비상민화(岡田 浩樹 2000)'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195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격적 관계, 전근대적 관계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각자가 '유교적으로 규정되는 인간'을 지향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문화적 인간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관계가 해소된 이후 마을사람들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문화를 지탱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는 배타적 가족경영을 확립하고 의례적으로는 자신의 문중을 조직하여 자신의 선조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다만 마을 내에서 노동과정 상의 필요나 '인간된 도리'의 수행 상의 필요를 위해서만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나갔다(졸고 2005: 5장).

논문투고일(2008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2008년 6월 9일), 게재확정일(2008년 6월 23일)

참고문헌

1. 간행물 및 자료집

서울대학교 박물관 및 경기도청 2007 『경기도 무형문화재 자생력 강화방안』

지역문화연구소

2004 『경기도 양평군 산음리 조사보고서』

군포시문화원 간행예정

2008 『군포마을조사보고서(미정)』

지역문화연구소

2005 『시흥시농촌문화보고서』(미간행)

국가기록원

1950 『분배농지부』

간행예정

2008 『원시혁신도시개발지역 마을조사보고서(미정)』

국립민속박물관

1994 『한국의 두레』

2. 논문 및 단행본

김성호

2001 "남북한의 농지개혁 비교연구", 홍성찬 편, 『농지개혁 연구』, 연세 대학교 출판부.

김성호 외

1989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미

2003 "사촌마을 동제의 변화와 동성집단의 정체성 확립", 안동대학교

114 『비교문화연구』 제14집 2호(2008)

민속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일영

1995 "농지개혁, 5·30 선거, 그리고 한국전쟁", 『한국과 국제정치』 11(1).

2000 "농지개혁의 신화와 해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한국정치외교 사학회.

류기천

1990 "농지개혁과 토지소유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박석두

1987 "농지개혁과 식민지지주제의 해체 — 경주「李氏家」의 토지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1.

박진도

1993 "농지개혁의 역사적 한계", 『쟁점 한국근현대사』 3.

방기중

2001 "농지개혁의 사상 전통과 농정이념", 홍성찬 편, 『농지개혁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신기욱

2001 "농지개혁의 역사사회학적 고찰", 홍성찬 편, 『농지개혁 연구』, 연 세대학교 출판부.

신용하

1987, "두레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한국근대 사회사연구』, 일지사.

송준호

1989,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아승택

2007 "식민지 조선의 근대봉법과 재래농법: 경기남부 논밭병행영농의 환경·기술·역사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오창현

2005 "한국농촌공동체의 구성원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수종
 - 1990 "한국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광규
 - 1971 "한국의 사회구조와 문화유형", 『한국문화인류학』 4.
 - 1986 "Confusian Tradition in the Contemporary Korean Family," The Psyo-Cultural Dynamics of the Confucian Family: Past and Present, International Cultural Society of Korea.
 - 1987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 이기태
 - 1997 『읍치 성황제 주제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의 창출』, 민속원,
- 이만갑
 - 1973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만갑 & Brandt, Vincent
 - 1979 『韓國의 地域社會 開發: 4개 새마을 部落의 事例研究』,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 이지수
 - 1994 "해방 후 농지개혁과 지주층의 자본전환문제", 연세대 사학과 석 사학위논문.
- 이태진
 - 1987 "17·18세기 향도 조직의 분화와 두레 발생", 『진단학보』 67.
- 장상화
 - 1984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상) 충남 서산군 근흥면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경제사학』 8.
 - 1985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하) 충남 서산군 근흥면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경제사학』 9.
 - 1993a "농지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쟁점 한국근현대사』 3. 1993b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같은 책.
 - 2000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경남지역의 사례연구를 중심 으로 —", 『경제발전연구』 6(1).

정진상

1994, "한국전쟁과 계급구조의 변동 — 경남 진양군 두 마을 사례연구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급과 한국사회』, 한울.

정승모

- 1991 "城隍祠의 민간화와 鄕村社會의 變化", 『태동고전연구』 7.
- 1991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조직", 『역사민속학』 1.
- 1998 "순창 성황제: 조선 중기 전라도 순창군 성황제의의 성격", 『역사 민속학』 7.
- 2002 "장례와 관련된 동계의 변화와 유학계", 『역사민속학』 15.
- 2005 "18·19세기 농민층 분해와 향촌중인", 『대동문화연구』52: 135-164.

조경만

- 1986 "두레의 일과 놀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87 "농업노동형태의 생태경제적 맥락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인류 학』19.

주강현

1997 『한국의 두레 1』, 집문당.

최은영

1984 "한국농촌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재석

1981(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한상복

- 1964 "한국 산간 촌락의 연구", 『社會學論叢』1.
- 1983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3.

함한희

- 1991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과 궁삼면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그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23.
- 2004 "이씨농장과 현대농장", 『인류학과 지방의 역사』, 유철인 외 7명, 아카넷.

황경순

2001 "尙州 天鳳山城隍祭 主宰集團의 지속과 변화", 안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홍성찬

1992 『근대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지식산업사.

홍성흡

1986 "토지소유와 지주소작관계의 성격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岡田浩樹

2000 『兩班一変容する韓国社会の文化人類学的研究』, 風響社.

大塚久雄、이영훈 역

1982(1955) 『共同體의 基礎理論 2』, 돌베게.

島陸奥彦

1978, "韓国の門中の地縁性に関する試論", 『民俗学研究』 四三(一): 七五~九〇.

本田洋

2002 "한국 지역사회의 지연성과 공동성", 『한일사회조직의 비교』, 아 연출판사.

櫻井浩

1976 『韓國農地改革の再檢討』、アジア經濟研究所.

善生永助

1935 『朝鮮の聚落(後編)』,朝鮮総督府.

鈴木榮太郎

- 1943 『日本農村社會學原理』,時潮社.
- 1973 『鈴木榮太郎著作集 V 朝鮮農村社會の 研究』, 未來社.

伊藤亞人

- 1990 "계 조직에서 나타나는 친한 사이", 『한국의 사회와 종교: 일본인 에 의한 사회인류학적 연구』, 아세아 문화사.
- 2002 "한국의 임의 참가조직: 지방 출신자의 결사를 중심으로", 이토아 비토·한경구 편, 『한일사회조직의 비교』, 아연 출판사.

118 『비교문화연구』 제14집 2호(2008)

中村哲, 안병직 역

2000(1977) 『노예제와 농노제의 이론』, 지식산업사.

秋葉隆

1987(1950) 『朝鮮巫俗의 現地研究(최길성 譯)』,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3(1954) 『朝鮮民俗誌(沈雨晟 譯)』, 동문선.

Brandt, Vincent

1972 Korea Village Between Farm and Sea, Cambridge, Havard univ. Press.

Cooper, R.

1984 Resource Scarcity And The Hmong Response, Singapore University press.

Janelli R. L. and D. Y. Janelli, 김성철 역 2000(1982) 『조상의례와 한국사회』, 일조각.

Leach, Edmund

1970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a study of Kachin social structure, Athlone.

Goldberg Charles N.

1974 "양반, 상놈과 인류학자", 『한국문화인류학회』 6.

Weber, Max

1968 Economy and Societ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ed.), Bedminster Press, New York. (Key concepts): Land Reforms, Korean rural community, Production organization ('Du-Re'), Ritual organization, Status relation(Ban-Sang relation), landlord/tenancy relation

Land Reforms and The Transformation of Rural Community:

Comparative Studies on Two Districts in Kyunggi-Do

OH, Changhyun*

This study comparatively examines transformations of labor organization (Du-re) and ritual (funeral) organization between Sanum-ri and Sokdal-dong after Land Reforms. These villages have some 'hamlets' and were conditioned on very different kinship relation and productive relation. In both villages, changes were witnessed but Each moments of changes varied greatly.

Land Reforms which included both Korean government's and American military government's had, by the compulsory distribution of landlord's farms, great effects on the structure of Korean rural society. In Sanum-ri, the change in productive relation had affected directly on status relation, which had dissolved. In contrast, the effect of Land Reforms was very restrictive in Sokdal-dong, in that the construction principle of old productive organization and ritual organization remained unchallenged until 1980.

^{*} Graduate Student, Anthropology Depart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120 『}비교문화연구』 제14집 2호(2008)

The reason of different results as such can be attributed to difference in productive relation, kinship relation, status relation between two villages. Land Reform resulted in dissolution of land/tenancy relation in Sanum-ri where kinship organizations were near non-existence. In contrast, Sokdal-dong where strong kinship organizations prevailed, survived the Reform due to the restrictive distribution clauses on mountain and farmland for ancestral tombs. Not only private farmland, land for housing remained mostly undistributed after the Land Reforms, but also farmland for ancestral tombs were secured as lineage property by kinship organizations, and abided by the Reforms, therefore maintaining the status relation unchallenged. Sokdal-dong's different economic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was the driving force that kept productive organization and ritual organization based on the status relation(Ban-Sang rel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nsist that the change in korean rural society can be explained not by 'Yang-ban-ization' or 'De-Sang-minization', but by 'Confucian-ization' or 'cultural humanization.' Ban-Sang relation between 'Yang-ban' culture and 'Sang-min' culture, on the assump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Yang-ban and 'Sang-min', had disappeared or drastically weakened after Land Reforms. Hereafter Ban-Sang relation have not proceeded. Instead everyone desired to possess Confucian culture. I want to call this social phenomenon 'Confucian humanization' or 'Cultural humanization.'